

# 소비세 인하에 추가 할인까지 ... 차 9월에 사세요

올해 차를 사고 싶다면 언제가 가장 적 기일까. 정답은 바로 9월이다. 개별소비 세 인하에 신차가 쏟아지는 9월에 국 산 및 수입차 브랜드들이 최대 규모의 할 인 및 사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 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9월엔 2000 만~3000만원 짜리 차를 산다고 가정할 때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싸게 살 기 회가 제공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차 시장을 좌 지우지하는 현대기아차는 9월부터 차종 별로 개소비 인하에 동등한 수준으로 차 값을 추가로 깎아주는 사은 행사를 준비 중이다.

‘국민차’ 쏘나타 2.0 스마트가 개소비 인하로 차 값이 2545만원에서 2498만원 으로 47만원 내려갔다. 현대기아차가 추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비슷한 수준의 액수를 더 깎아주는 형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 체감액이 더 커 지는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소비 인하를 계기 로 내수 경기 활성화와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9월 구매 행사를 준비하고 있 다”고 말했다.

기아차도 8월에 K3와 K7 승용차, RV 인 스포티지 구매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깎아주거나 초저금리 할부+할인 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9월에는 혜택의 폭을 더 넓힐 예정이다.

현대차는 8월에 2016년형 쏘나타 구매 자에게 30만원 할인 또는 2.6%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차종별 할인 프로그 램을 마련했다. 신차 출시를 앞둔 아반떼 의 경우 차값의 7% 할인 또는 30만원 할

인+36개월 무이자(선수율 20%) 등의 혜 택을 판매 조건으로 내걸었다.

9월에는 할인액이 더 커질 전망이다. 더구나 9월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 도를 바꿀 현대차 아반떼 신형과 기아차 스포티지가 차례로 나올 예정이라 출시 기점 사은행사로 할인 혜택이 더욱 다양

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GM과 르노 삼성, 쌍용차도 9월에 현대기아차 못지않은 대대적인 할인 행 사로 차량 판촉전에 뛰어들 계획이다.

현대차 그랜저를 잡겠다고 선언한 한 국GM의 임팔라는 9월 본격 출시되면서 각종 구매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임팔 라는 사전계약이 21일까지 3000대를 넘 어섰다.

수입차 최고 베스트셀러인 폭스바겐 의 티구안은 9월에 2016년식 모델 가격 도를 바꿀 현대차 아반떼 신형과 기아차 스포티지가 차례로 나올 예정이라 출시 기점 사은행사로 할인 혜택이 더욱 다양

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과 르노 삼성, 쌍용차도 9월에 현대기아차 못지않은 대대적인 할인 행 사로 차량 판촉전에 뛰어들 계획이다.

현대차 그랜저를 잡겠다고 선언한 한 국GM의 임팔라는 9월 본격 출시되면서 각종 구매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임팔 라는 사전계약이 21일까지 3000대를 넘 어섰다.

수입차 최고 베스트셀러인 폭스바겐 의 티구안은 9월에 2016년식 모델 가격 도를 바꿀 현대차 아반떼 신형과 기아차 스포티지가 차례로 나올 예정이라 출시 기점 사은행사로 할인 혜택이 더욱 다양

## 뜨거운 소형 SUV 시장... 이젠 디젤끼리 붙는다

### 쌍용 티볼리-르노삼성 QM3-한국GM 트랙스 각축

최근 급성장한 소형 SUV 시장을 놓고 국내 완성차 업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경쟁이 디젤 모델 부문으로도 옮겨붙고 있다.

3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는 올해 1월 출시된 쌍용차의 티볼리와 르노삼성의 QM3, 한국GM의 쉐보레 트랙스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SUV 중 내수 판매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차종은 올해 1~7월 2만2535대가 팔린 티볼리다. 그 뒤를 QM3(1만2549대)와 트랙스(6178대)가 쫓고 있는 양상이다.

쌍용차는 지난달에는 기존의 가솔린 모델에 이어 티볼리 디젤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다양화했다.

이에 맞서 한국GM은 트랙스 디젤 모델을 9월 시판하기로 하고 지난 23일부터 사전계약 접수에 들어갔다. 처음부터 디젤차로 출시된 QM3과 티볼리 디젤 모델과의 경쟁이 내달부터 본격화되고 할 수 있다.

이들 3종의 소형 SUV 중 선두를 달리는 티볼리는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안정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티볼리는 지난달 SK C&C 9월 연매매가 성인남녀 3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모델’로 뽑혔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에서는 총점 91.9점(100점 만점)으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다.

QM3은 연비 분야에서 단연 1등이다. QM3의 복합연비는 ℓ 당 18.5km로, 티볼리 디젤(15.3km/ℓ)과 트랙스 디젤(14.7km/ℓ)을 앞선다.

티볼리 디젤과 QM3에 도전장을 낸 트랙스 디젤은 뛰어난 성능이 최대 장점이다. GM 유럽 파워트레인 개발하고 독일 오펜이 공급하는 4기통 1.6 CDTi 디젤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트랙스 디젤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각각 135마력, 32.8kg.m이다. 티볼리 디젤(115마력, 30.6kg.m)이나 QM3(90마력, 22.4kg.m)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

업계 관계자는 “9월에 트랙스 디젤 모델이 정식 출시되면 소형 SUV 시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이 경쟁 차종 중 어떤 장점을 보고 모델을 고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쌍용차 티볼리



르노삼성 QM3



한국GM 트랙스

## 현대차 獨 모터쇼서 고성능 브랜드 ‘N’ 첫 공개

현대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자사의 고성능 브랜드 ‘N’의 개발 방향성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현대차는 오는 15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행사에서 고성능 브랜드 ‘N’의 정의와 로고, 개발 방향성 등을 발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고성능 브랜드 N은 현대기아차 기술 개발의 핵심 기지인 남양연구소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차세대 i20 랠리카 공개를 통해 자사의 기술 역량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 차는 신형 i20에 기반한 월드랠리챔피언십(WRC)의 시험 모델이다. 내년에 열리는 WRC 몬테 카를로 대회부터 참가할 예정으로 현재 혹독한 조건에서 시험 운행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WRC에 참가하면서 고성능차 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향후 양산차에 대한 기술 적용과

고성능차 개발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서울모터쇼에서 선보였던 ‘RM15’ 콘셉트카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전시될 예정이다. RM15는 N 브랜드의 양산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콘셉트카다. 벨로스터를 기반으로 엔진이 차체 중앙에 위치하는 미드십 방식으로 설계됐다. 티보차저를 장착한 고성능 세타 2.0 GDI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300마력 이상, 최대 토크 39kg.m의 성능을 자랑한다.

현대차는 N 브랜드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현대 N 비전 그란 투리스모’ 쇼카(모형차)도 선보인다. 이 쇼카는 비디오 게임인 플레이스테이션 전용 콘셉트카로 미래 기술과 경주용차 디자인을 접목해 개발됐다.

현대차 프레스 행사는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행사장 6번 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현대차 이달 출시 신형 아반떼 사전 계약

현대자동차가 전국 영업점에서 준중형 세단인 신형 아반떼의 사전계약을 받기 시작했다. 9월 초 출시 예정인 신형 아반떼는 2010년 이후 5년만에 나오는 6세대 모델이다.

더욱 스포티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 탁월한 주행성, 차급을 뛰어넘는 안전 및 편의사양 등 기본기 혁신으로 재탄생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아반떼는 후방감지 레이더로 사각지대나 후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해 위험을 알리는 후측방 경보시스템, 스마트키를 지닌 차

량 뒤쪽으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트렁크 문이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 등 최첨단 안전·편의 기술을 국내 준중형 세단 차량에 최초 적용했다. 이외에도 고위도의 8인치 내비게이션과 블루링크 2.0 등의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신형 아반떼는 이와 더불어 차체 강성을 보강하고 새시 구조를 최적화해 안정적인 주행감을 구현했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신형 아반떼는 기존 U2 1.6 엔진의 가속 응답성을 높였으며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CT)를 장착했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화요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죽지성 맛집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